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수행과제명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 정 해 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chung@kwdimail.re.kr

요 약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가족의 기능상의 결손이나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학업결손은 물론 정서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학교에 진학한 여성청소년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임

1. 문제 인식

학업중단 청소년이 2010년 현재 61,910명에 달함.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와 학교에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그만 둔 잠재적 학업중단자를 포함할 경우 많게는 그 10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한편, 학업중단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차원에서 추진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이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를 둘러싼 생태학적 지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또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수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업중단학생 예방 노력, 성과를 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반영하였음.¹⁾ 이로 인해 그동안 ‘한번 걸러주기’²⁾ 위해 은근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루어졌던 학교의 자퇴 권고행위가 줄어들어 등 향후 외형상으로는 학업중단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교가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는 미봉책에 가까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학업을 중단한 잠재적 학업중단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청됨.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배경

41명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가족, 학교, 또래

- 1)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업중단(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 실적”을 1000점 만점에 30점 반영
- 2) 안타까운 건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첫 해에 갔을 때 35명이었어요. 2학년 올라갈 때는 25명 정도예요. 10명 정도가 자퇴하거나 전학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슬픈 말인데, 한 번 걸러줘야 된다고, 한 번 걸러줘야지 애들을 3년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공업고등학교 상담교사, 제2차 전문가집담회에서)

집단은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배경요인들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업중단이 개인과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복합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안전과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가족

먼저 이들의 가족환경을 보면,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부모가 없는 가족 등 가족의 구조가 해체 및 재구성된 사례가 전체의 약 61%로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 더 많았으며, 이들 가족은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양육자/보호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할 어머니’의 부재는 여성청소년에게 ‘작은 엄마’라는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현상들은 비교적 빈곤하고 가부장적 가치가 강한 가족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약한 계층일수록 여성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아내나 어머니의 연장선상에 놓인 여성’(변혜정, 2006)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임. 가정폭력과 과중한 역할부담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은 결국 생존을 위한 가출을 선택하게 되며, 이후 반복되는 가출은 결석일수 및 학업결손 증가, 일탈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업중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됨

■ 학교 부적응과 폭력적 또래문화에의 동조

결핍된 문화자본은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한 또래들에 비해 그렇지 못한 여성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할 뿐 아니라 잦은 결석은 이들의 학습능력을 더욱 저하시킴으로써 성적에 의해 서열화되는 학교공간에서 또다시 차별받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됨. 게다가 각종 규제와 교칙들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하게 될 경우 학교는 이들에게 ‘문제학생’이라는 낙인

을 찍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체벌과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함. 가정에서처럼 또다시 폭력이 재현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는 여성청소년들이 꼭 참고 다녀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됨. 심지어 ‘문제학생’인 이들에게 자퇴나 전학을 권유하거나 학교행사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가 여성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에 오히려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으며, 체벌과 무시를 당했다고 호소함. 이들 대부분이 가족의 이렇다 할 교육적 지원 없이 학교에 진학한 상황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학교 공부는 아예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토로함. ‘공부가 아니고 다른 걸 잘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성적에 따라서 애들을 평가하는 게 싫었다’는 여성청소년의 이야기는 학력위주 문화가 팽배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여줌. 이러한 학교 문화 속에서 여성청소년들은 남성청소년에 비해 특히, 교사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크게 상처받으며, 가족과 학교로부터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더욱 크게 작용하여 비슷한 처지의 또래집단에 더욱 집착하게 만듦. 또래집단의 하위문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무단결석이나 일탈에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꾸로 왕따를 하거나 당하는 등 관계의 친밀성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경향도 강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게 됨

교사 집담회에서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배경에는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단정지은 한 상담교사의 말처럼 또래집단 역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여성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탈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보게 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들을 모델로 삼기도 함.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해 본 경험도, 경험에 필요한 자본도 없는 ‘계층적 동일성’이 또래집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음. 또한 집단따돌림과 같은 또래와의 관계단절, 소통이나 배려보다는 군대문화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집단문화 등은 관계의 친밀성을 중히 여기는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정책제언

제안1)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을 보더라도 비록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마음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학교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바뀐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은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 가족의 폭력이나 과도한 가족내 역할부담에 힘겨워하는 여성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해주어야 함

제안2)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강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사들이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또한 강화되어야 함.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현장전문가 집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이야기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차이를 잘 보여줌.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훨씬

상처를 잘 받아, ‘야, 학교 왜 안 왔어?’와 같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친구들과 잘 휩쓸리는 만큼 왕따로 인한 상처도 큼. 이는 초기 발달단계에서부터 관계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김성이 외, 2004) 여성 청소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불우한 가족환경에서 받은 상처가 적지 않은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함.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왕따와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학업 중단이나 전학을 가는 사태로 발전하게 됨

한 중학교 상담교사의 이야기처럼 여성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오히려 강한 반감을 일으키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꿈도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결석하는 여성청소년에게 ‘몸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교사의 지도가 이 여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게다가 동일한 행동을 한 남학생에게는 ‘너희 집 장남이지 않니’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사들 중에는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여성청소년들이 마음을 다쳐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지도방법과 관련한 교사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 영주의 사례는 여성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데 교사 재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학교라는 것 자체가 압박감도 너무 많이 주고. 이래저래 집안 사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선생님들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제 잘못만 탓하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라는 게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니가 잘못을 했으니까 집에서 그러지 그렇게만 판단을 하니까.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겠구나. ... 아빠가 폭력이 심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안 나가는 날도 많았고. 무단결근이 진짜 많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측은 그런 거죠. 니가 어떤 잘못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때리셨겠지.(윤영주)

제안 3) 학교 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 상담 강화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갈등, 가출,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학교 상담을 체계화하여 학교 상담을 강화하여야 함. 학교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학생은 최소 1년에 한번은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은 문제있는 애들만 받는 건데, 내가 상담실을 가는 순간 나를 문제있는 애로 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 이는 현재 학교 상담이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더욱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도 교사가 보내주지 않으면 상담교사가 상담을 할 수 없는 등 학교의 학생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도 학교 상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가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상담·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학생통합안전시스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개별학교에 설치되는 Wee Class가 2009년 1,530개교에서 2010년 2,530개교, 2011년 3,530개교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2010년 현재 926명에 불과하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2009년 1,614명에서 2010년 981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학교 상담실역할을 하는 Wee Class가 말 그대로 일부학교에서는 상담교실만 있고 전문상담가 없이 일반 교사나 인턴교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Wee Class라는 학교 상담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담만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더욱이 학업중단의 위기에 놓여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워할 뿐 아니라, 그 동안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

이나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 일반교사가 상담을 할 경우 상담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따라서 학교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 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1년에 한번 모든 학생이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 의무제와, 수업시간에 상담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전, 출입 시 상담교사의 결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상담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제안 4)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이러한 학교 상담 인프라를 토대로 자퇴형식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학생에게 자퇴나 전학 등과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함. 학업중단을 하려는 학생은 관련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날로부터 최소 한 달정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학교 상담실 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3회 이상 받도록 하고, 상담실적을 자퇴원서 등에 첨부하도록 함. 여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왕따 등 또래집단과의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자퇴의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경우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최종적으로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교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배포함.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음. 이들 말대로 ‘운 좋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떠나는 순간에 학교를 대신해서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에 들고 있게 해야 함. 이 안내책자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개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담음.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계비를 벌어야 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할 경우 사회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남성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아,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4. 기대효과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및 학업중단 예방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의 조기 발굴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학교선진화과, 교육복지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정책과